

국토정책 *Brief*

제 254 호
2009. 11. 23

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시사점

박세훈 책임연구원, 정소양 연구원(국토연구원)

-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, 국토관리차원에서 외국인의 거주가 미치는 공간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
 - 국내 체재 외국인은 2007년 100만 인을 넘어섰으며 2008년 116만 인에 이름
 - 외국인의 증가추세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, 유형별로는 노동자의 비중(61%)이 가장 높고,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(42.5%)이 높음
- 외국인은 유형별·국적별로 공간분포가 다르게 나타남
 - 노동자들은 수도권 및 동남권 일대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
 - 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산재, 유학생은 대학가를 중심으로, 전문 인력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거주
 - 같은 노동자라도 한국계 중국인은 수도권 일대의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집적하여 타 국적 노동자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음
- 외국인은 대도시권(mega-city region)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, 대다수가 하위 노동시장에 속해 있어 향후 사회통합정책이 긴요해질 것으로 전망됨
 - 외국인 유입은 향후 수도권 인구증가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
 -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족적, 공간적, 계층적 분리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 -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빈곤,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고착화되므로 체계적 관리와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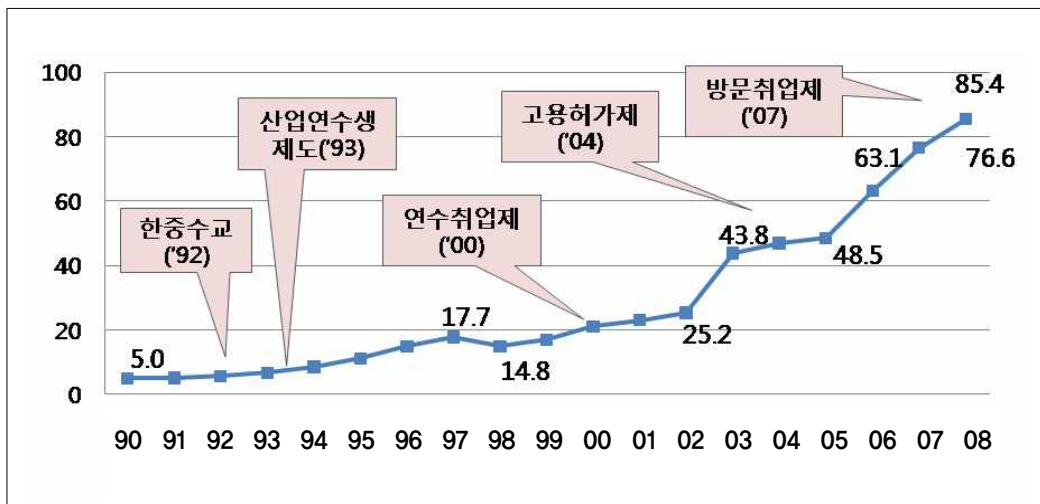
1.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 전개

●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대두

- 국내 체재 외국인은 2007년 100만 인을 넘어섰으며 2008년 116만 인에 이르고 있음
 - 등 외국인(0일 이상 체 자 보유)은 0년대 5만여 인 수 에 으나 2008년 85만 4 인으로 증
 - 통계 예 으로는 2020년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54만 인(인구 대비 5%), 2050년 40 만 인(인구 대비 .2%)에 이르 영국(10.1%, 2006년) 같은 수 의 합민족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
- 국내 외국인 인구는 외국인 단 노동자의 유입을 하는 외국인 고 정책에 가장 영향을 증가하 으며, 결혼이주자 및 유학생의 증가도 영향을 미

【그림 1】 국내 등록외국인의 변화추이

(단위 만 인)



자 입국외국인정책

● 공간적 접근의 필요성

- 국내 외국인 관 정책은 노동정책, 교 정책 등 문별 정책에서 주로 다루어 으나, 외국인인 국토공간 및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음
- 외국인의 공간분포 성을 유형별 · 국적별로 파악하여 향후 다문화사회의 전 가 국토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 하고 이에 대한 대응 이 필요

2. 외국인의 공간분포 총괄

■ 시도별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보 ,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수도권 지역의 비중 증가속도가

- 25.7만 인, 서 25.6만 인, 인 4. 만 인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외국인의 66%가 거주
- 인구 인 외국인은 서 (25.0인), (22.7인), 인 (18.0인)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, 외 남(17.4인), 남(16.1인), (14. 인) 임

[그림 2] 시도별 인구 천 인당 외국인 인구 추이(좌) 및 시군별 비중 분포(우)



자 입국외국인정책

■ 시 구별로 보 2만 인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 4 이 수도권에 있으며, 외국인 비중 5% 이상인 지역 11 중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

- 외국인 인구가 2만 인 이상인 시 구 서 영등포구(.5만 인), 구로구(2.8만 인), 도 산시 단원구(2.7만 인), 도 화성시(2.2만 인)
- 외국인 비중이 5% 이상인 시 구 서 영등포구(8.7%), 구(7. %), 구로구(6.6%), 중구(6.5%), 산구(5.4%), 로구(5. %), 도 산시 단원구(8. %), 포시(5. %), 포시(5.2%), 전남 영 (6.8%), 음성 (5.1%)

3. 외국인의 유형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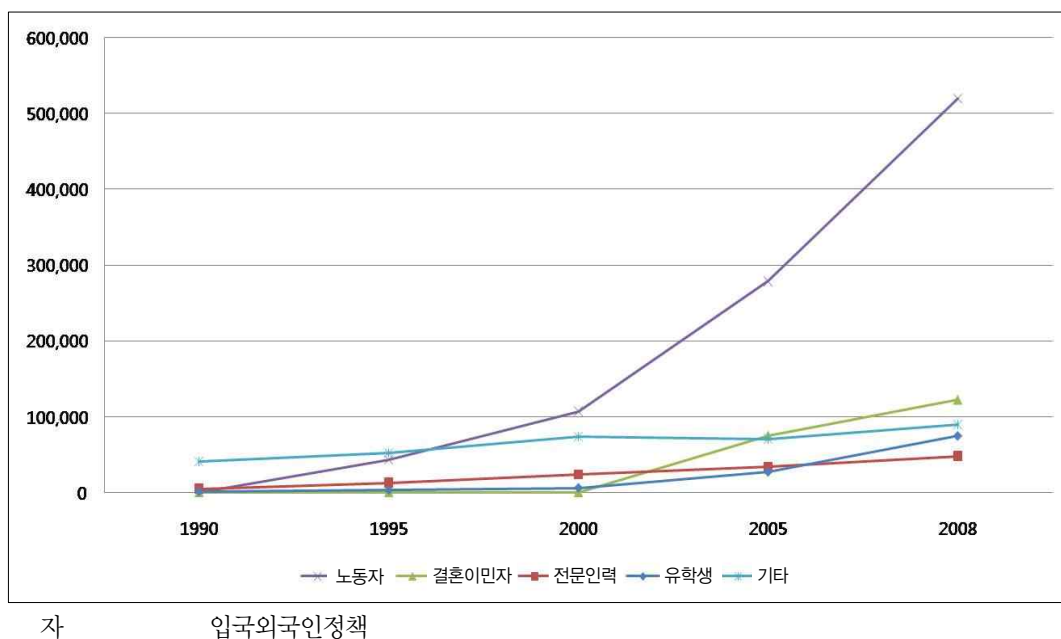
■ 외국인을 체 자 에 따라 노동자, 결혼이민자, 유학생,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보 , 노동자가 52만 인으로서 전체 외국인의 60. %를 차지

- 노동자의 비중은 1 0년 2700인에서 2008년 52만 인으로 증가하 으며, 이는 1 년 산업 수생제도, 2004년 고 가제 및 2007년 문 업제 등 외국인 고 정책 변화에 따 결 임

산업 수생제도 장 2년 지 외국인을 수생 분으로
고 가제 수 간 이 년간 외국인을 정 로자로 업
문 업제 중국 및 시 동포에게 장 8년간 수 문 및 업

- 결혼이민자는 12.2만 인으로 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유학생(7.4만 인), 전문인력(5.6만 인)이 다음 임

[그림 3] 외국인의 유형별 인구추이(1990~20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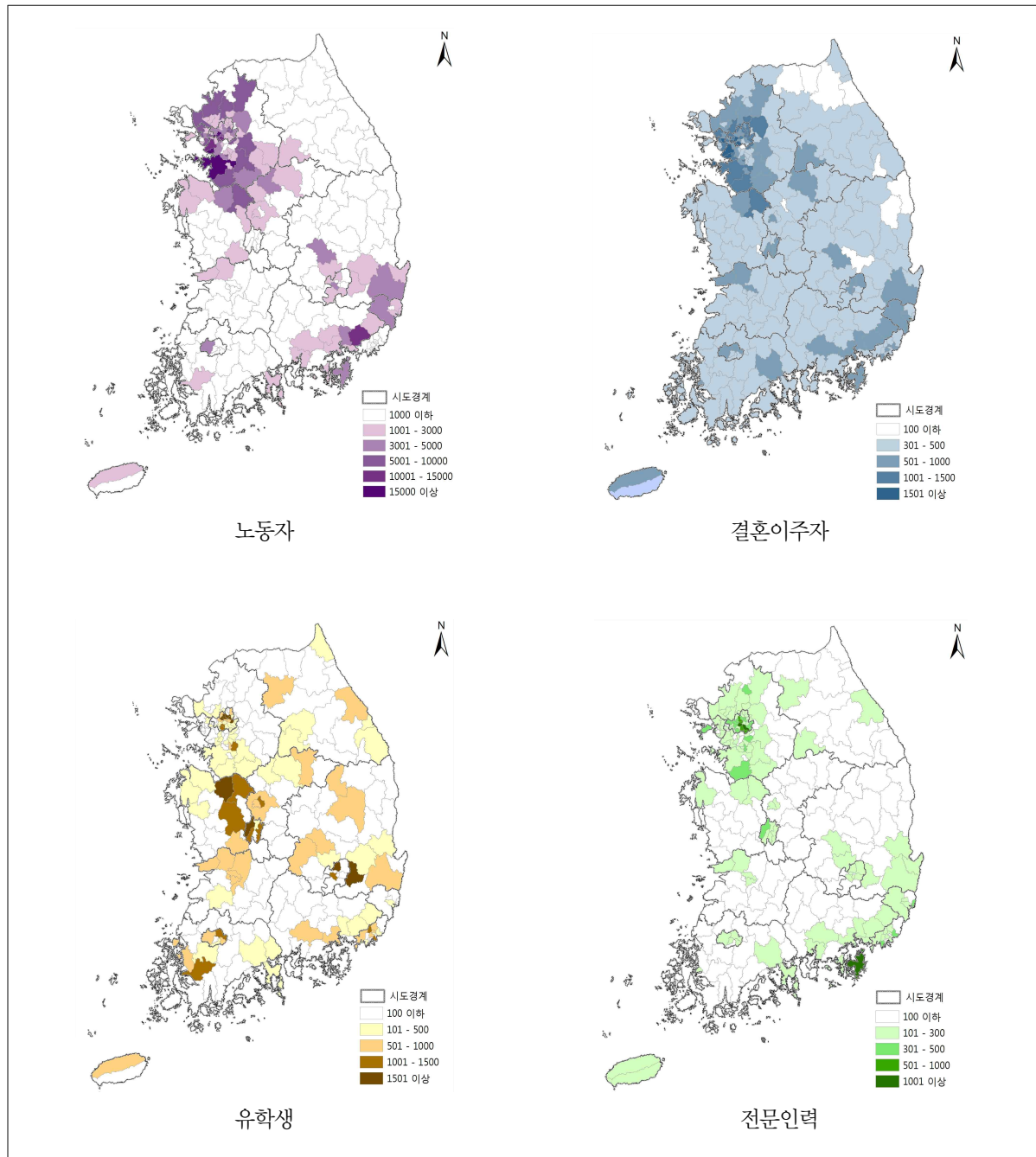


■ 외국인의 유형별 공간분포를 보 , 노동자는 주로 산업단지 주변에, 결혼이민자는 전국적으로, 유학생은 대학가를 중심으로, 전문인력은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

- 노동자 유형은 고 가제 및 문 업제를 통해 입국한 이들로, 수도권 및 동남권 일대의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 분포
- 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음

- 유학생은 서해안의 대학가와 산시, 산시, 시, 영등 중국유학생을 집중 유치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분포
- 전문인력은 서해안, 산, 대전 등 대도시지역 및 거제시에 집중되어 있어 타 외국인의 분포와 상이함

[그림 4] 외국인 유형별 공간분포(20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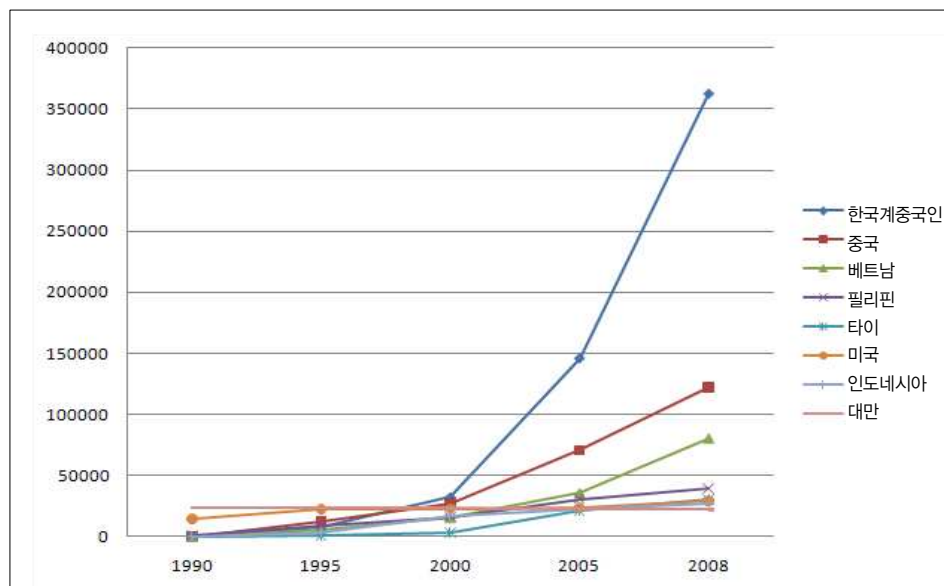


자 입국외국인정책

4. 외국인의 국적별 공간분포

- 1990년 국내 외국인은 대만, 미국, 일 국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, 1992년 한중수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2008년 중국 48.5만 인, 베트남 7.만 인, 필리핀 1.만 인, 태국 0.5만 인, 미국 2.만 인의 순으로 시계의 비중이 도적으로
 - 중국 국적 중 한국계 중국인(위족)은 6.만 인으로 전체 외국인의 42.5%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도
 - 한국계 중국인은 노동자의 비중이 8%가량으로 높으며, 타 중국인은 유학생(44.6%), 타인은 결혼이민자(1.%), 필리핀은 노동자(6.8%), 미국은 전문인력(40%)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[그림 5] 국적별 체재외국인 증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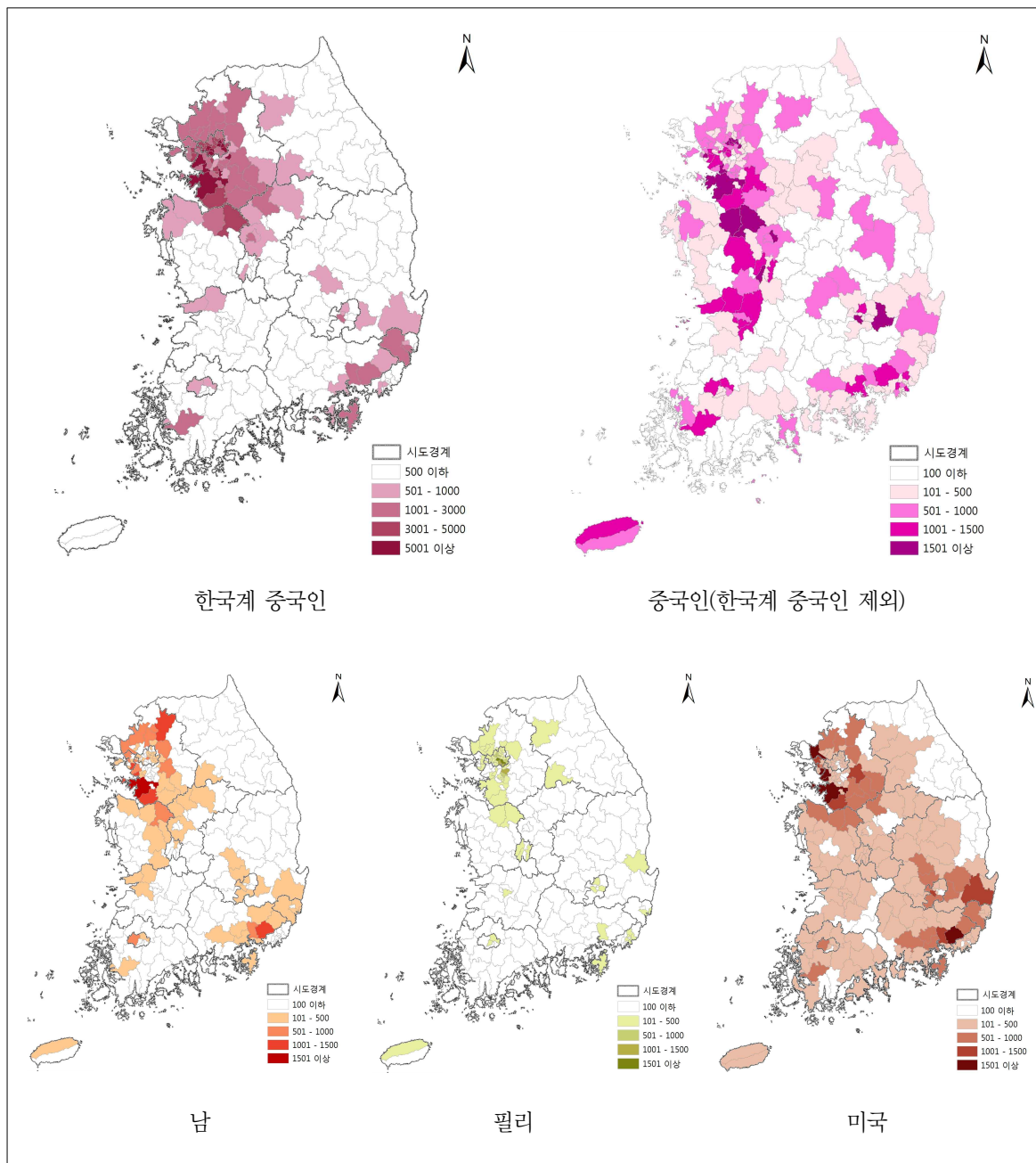


자 입국외국인정책

- 국적별 공간분포 역시 차이를 보이는 이는 국적별로 체 유형이 라지 문인 것으로 단됨
 - 한국계 중국인의 , 노동자의 비중이 높지만 서 수도권의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비중이 높은 , 한국어 구사 력을 으로 서비 업에 사하 문인 것으로 보임
 - 타 중국인의 , 노동자보다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전 국적으로 산재하는 성을 보임

- 남인의 ,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수도권 동남권의 산업단지 및 전국 농촌지역에 고루 분포
- 필리 인은 노동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수도권 외 동남권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포
- 미국인은 전문인력이 대다수이며, 서 및 산의 도심지역에 분포하는 성을 보임

[그림 6] 외국인의 국적별 공간분포(2008)



자 입국외국인정책

5. 시사점

- 외국인 유형별·국적별로 공간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남
 - 노동자들은 수도권 및 동남권 일대의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, 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며, 유학생은 대학가를 중심으로, 그리고 전문 인력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거주
 - 같은 노동자라도 한국계 중국인은 수도권 일대의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집적하여 타 국적 노동자와 차이를 보임
- 외국인은 대도시와 주변지역, 위 대도시권(mega-city region)에 집중도가 높 향후 수도권 동남권의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
 - 수도권의 , 전체 외국인의 66%가 거주하 서 향후 외국인 인구가 수도권 인구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
- 외국인 노동자가 대도시권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도시하위계층(suburban)을 형성할 것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
 - 향후 도시하위계층의 국적별 공간분포는 ‘한국계 중국인 - 차서비 - 도심지역’, ‘타 외국인 노동자 - 단 제 업 - 대도시 외 지역(산업단지 주변지역)’으로 분될 것으로 예상
 - 계층 분리가 민족적 분리 및 공간적 분리와 함께 진행될 , 빈곤,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고 화될 가 성이 며, 이에 대응하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필요
- 향후 외국인 밀집지역의 산에 대응하는 ‘사회통합 도시관리정책’ 필요
 - 중 정 차원에서 ‘사회통합 도시관리정책’의 지 을 성하여 향후 자치단체가 도시정책 수립에 할 수 있도록 제시
 - 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인구를 도시 계 인구에 영하고 외국인 생 실 에 대한 정보를 구 하는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구

● 국토연구원 녹색국토·도시연구본부 박세훈 책임연구원 (shpark@krihs.re.kr, 031-380-0220)
국토연구원 녹색국토·도시연구본부 정소양 연구원 (jungsy@krihs.re.kr, 031-380-0176)